

독립운동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광주기독병원 홍덕주·김금석·김화순 등 독립정신 계승
광주·전남 등 전국 후배 간호사들, 재조명 캠페인 전개

1919년 3월10일 일어난 광주만세운동은 일제 경찰의 대규모 탄압으로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옛 제중원) 남자간호사였던 홍덕주(당시 29세)는 병원 회계역 황상호(29), 제약생 장호조(24)와 함께 병원 등사실에서 '조선독립광주신문' 300부를 비밀리에 발행하고 배포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홍덕주는 일제 경찰에게 곤

불잡혔고 2년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같은 병원 동료 간호사였던 김금석(27)·김화순(여·25)·김안순(여·19)도 3월10일 거리로 나왔다. 광주시민과 송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대한독립'을 외치다 체포됐고,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뒤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맞아 후배 간호사들이 선배 간호사들의 독립정신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와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 간호사회는 올해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14일 광주시간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 이름을 올린 광주·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은 홍덕주·김금석·김안순·김화순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일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광주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합쳤다.

홍덕주는 지난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안순은 2011년 대통령 표창, 김화순은 2016년 대통령 표창, 김금석은 2018년 대통령 표창에 추서되며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 간호사들도 한 마음으로 일제에 맞섰다.

1927년 5월에 조직된 항일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도 간호사가 상당수 참여했다. 근우회 소속 간호사들은 여성 인권 신장 활동에 나서며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우회는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에도 적극 개입하는 등 독립운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1907년 일제가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했을 때 간호사들이 나섰다. 한국군과 일본군간 벌어진 전투에서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부상병들을 돌보며 항일 의지를 보여줬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12월2일에는 세브란스병원 노순경·박덕혜·이도산·김효순 간호사가 서울시 훈정동 대묘(종묘) 앞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용정 등에서는 간호사들이 독립군 부상병 치료 등에서 활약했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는 1920년 1월 31일 '적십자간호원 양성소'를 설치하며 간호사 양성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고미숙 광주시간호사회 사무처장은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고 계승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후배 간호사들이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하고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학생만세시위 주도 이창신 선생 유공자 포상전수 하룻만에 번복

퇴학 당해 학적부 기록 없어졌는데… “학적부만 인정” 보훈처 ‘이상한 잣대’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관장
父子 관계 증명 길 막혀 분통

국가보훈처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주를 대표하는 학생독립운동가인 이창신 선생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가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포상전수를 번복해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이창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의 아들인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관장 등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 포상(대통령 표창)을 유족에게 줄 수 없다는 게 보훈처의 주장이다.

14일 학생독립운동가 이창신(1914~1949) 선생의 유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이창신 선생에게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등기로 보내왔다.

이창신(당시 15세) 선생은 나주농업보습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27일 나주학생만세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다행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독자적으로 만세시위를 추진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선생은 같은 해 3월 졸업 예정이었으나, 무기정학 처분으로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사실상 퇴학처분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퇴학·제적 처분까지 독립유공자 범위를 넓히며 이 선생은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었다.

올해 5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던

장남 이명한 나주학생독립운동관장 등 유족은 이창신 선생의 업적이 90년 만에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며 크게 기뻐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일 공문을 다시 보내 이창신 선생과 이명한 관장의 유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포상 전수가 어렵다고 알렸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이창신 선생과 이명한 관장의 아버지인 이창신 선생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이 학생제적부 등 이창신 선생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면, 이창신 선생의 본적이 있는 자료와 이명한 선생의 본적을 비교해보겠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나주농업보습학교가 이창신 선생을 퇴학조치하며 학적부에서 기록까지 없애 탓에, 증명할 길이 막힌 유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족보와 이창신 선생 묘비에 나온 유족명단, 나주공립보통학교(현 나주초등학교) 학적부 등 이창신 선생과 이명한 선생의 부자(父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있음에도, 보훈처는 90년 전 나주농업보습학교 학적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기획팀장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다른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학적부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이창신 선생의 유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료를 추가 발굴하고 있으니 확인이 되면 훈장을 전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동욱 선생 항일사적비 제막

14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에서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 관계자들이 항일 활동을 펼쳤던 심사(心史) 신동욱 선생의 항일사적비 제막식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세월호 보고 조작’ 집행유예·무죄 선고에

유가족들 “숨방망이 처벌” 반발

4·16연대, 전면 재수사 촉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횡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관계자들이 14일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숨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유가족 입장을 발표하고 “오늘 판

결반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느냐”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대학교 돌며 절도 30대 검거

새벽시간대에 대학교를 돌며 전문적으로 지갑 등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4일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지갑을 훔쳐간 이모(3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5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실에서 김모(여·19)양이 테이블 위에 20만 원이 든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을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6월 이후 서울로 올라가 일정한 주거 없이 대학가 주변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서관 및 주변 PC방 등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옆집 물레 들어가 여성 속옷 촬영



○…옆집에 물레 들어가 여성 속옷 등을 촬영한 3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4)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20대 여성 A씨가 가족과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A씨와 마주치자 도망갔다는 것.

○…이씨는 지난 5월 말 본인의 옆집으로 A씨 가족이 이사온 이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A씨를 상습 촬영하는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옆집에 들어가 A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7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흰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